

전남 4개 국립휴양림·수목원 개장

장성 방장산 산행객 10여팀 찾아...“평일이라 한산” 손소독제 등 비치...주말 몰릴 것 대비 방역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됐던 국립휴양림과 수목원이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전남지역 4개 국립 휴양림도 이날 동시에 개방하면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졌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삼림욕 등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방장산자연휴양림 휴양림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기준 10여팀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휴양림을 거닐며 삼림욕을 즐겼고 일부는 휴양림을 거쳐 방장산 산행에 나서기도 했다.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 이영재 주무관은 “실내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한꺼번에 나들이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도 높았지만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휴양림 측은 공동화장실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자체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장흥 천관산자연휴양림 역시 이날부터 일반인들의 입장을 허용했으나 이날 오전 방문객은 한두팀에 불과했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위상혁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산으로 많이 피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오늘 입장을 허용했지만 아직은 한산한 편”이라고 전했다.

천관산자연휴양림은 지난 3월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전남 순천시에 있는 낙안민속자연휴양림도 이날 문을 열었지만 그동안 개장을 하지 않은 탓인지 오전 10시 현재까지 이용객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됐던 국립 휴양림과 수목원이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전남지역 4개 국립 휴양림도 이날 동시에 개방한 가운데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방장산자연휴양림을 찾은 등산객들이 휴양림을 거닐고 있다.

숙박시설은 5월5일부터 현장방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이용은 5월6일부터 할 수 있다.

휴양림 측은 개방에 앞서 객실과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체 방역 등을 실시했다.

산과 바다의 정취를 한꺼번에 느껴볼 수 있는 진도자연휴양림도

이날 입장을 허용했지만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진도자연휴양림 관계자는 “평일 이어서 한산하지만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해 손소독제 비치나 매일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동구, 2020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힘찬 출발

광주 동구가 2020 마을만들기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화로운 관계망 형성으로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다양한 주민모임과 단체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관내 마을공동체 사업 중 주민모임 형성·활성화지원, 아파트공동체 지원 등 7개 분야 총85개의 사업이 접수됐다.

구는 1차 서류 및 현장심사, 2차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3차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4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모두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인공지능 코딩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광주 서구가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인공지능 코딩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참여자를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미취업자, 연매출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취업취약계층 등이다.

참여자에게는 ▲교육비 전액 무료 혜택과 함께 ▲최대 75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관련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및 알선을 지원한다.

남구, 고충민원 130건 처리 과정 살핀다

광주 남구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및 소극적 처분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민원 130건에 대한 처리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남구는 22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해 담당부서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고충민원 점검반을 편성, 오는 27일까지 서면 점검을 비롯해 현장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북구,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지원

광주 북구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아파트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내달부터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0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00일 밝혔다.

이에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1999. 12. 13. 이전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옥상방수, 건물외벽 균열보수, 보도블럭 정비 등 시설정비와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용벽 보수,보안등 및 CCTV 교체 등이다.

(사)함께하는 사랑밭, 하남동에 구호물품 전달

비영리 민간단체(NGO) '(사)함께하는 사랑밭'이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손소독제·식량 등이 든 구호물품 50상자를 광산구 하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사)함께하는 사랑밭은 화상·난치병 치료, 미혼모 자립 등을 지원하는 단체로, 2018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하남동과는 지난해 8, 11월 두 차례 모금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임형택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전남도, 7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50% 할인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

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전남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7월까지의 사용·대부료 50%를 감경한다.

또한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 대부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남도는 임대료를 이

미 납부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 또는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일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광주시, 자동차 인프라시설 활용할 부품기업 모집

오늘부터 수시 접수

광주시는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산업 인프라시설을 활용할 지역 부품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기업은 23일부터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내 수시 접수한다.

선정된 기업은 한국자동차연구

원 광주본부에 구축된 '자동차 부품 시험평가 기반장비' (설계·해석, 평가장비 등)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을 지원받는다.

시는 2016년부터 시비 총 12억원을 들여 차체부품 경량화 설계와 내구성 확보, 필터 효율 향상 등을 위한 기술과 평가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이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신규 아이템을 발굴토록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28개 기업이 180여건의 기술지원과제를 수행, 매출 963억원이 증가하고 103명이 신규로 고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역 연구기관에 구축된 자동차 인프라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업 매출이 17%(연평균 4%) 성장을 보이는 등 기업 경쟁력 확보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도 지역 부품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공지사항의 공고문에 기재된 주요 활용 장비별 문의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환경경차 부품기업의 기술력 배양과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도 중소 부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엄벌에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만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빈부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